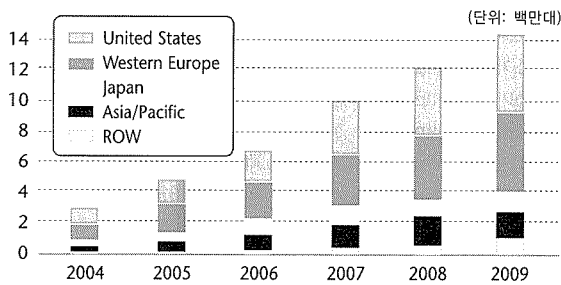


PDP-TV 시장 현황 및 전망

PDP는 대형 디스플레이로 적합하다는 특성에 따라 그 수요처가 TV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경쟁관계의 평판 디스플레이인 TFT-LCD가 휴대용 기기 및 노트북PC, 모니터 등 그 응용분야가 다양한 것에 비해 PDP는 대형 TV시장을 타깃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특히, IDC에서는 2005년 가정에서 사용되는 PDP-TV가 PDP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도 PDP-TV 시장 전망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PDP 산업을 전망하고자 한다.

시장 조사기관인 IDC는 2005년 세계 PDP-TV 출하량이 4백7십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연평균 31.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어 총 1천4백만대 이상의 PDP-TV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지역별 PDP-TV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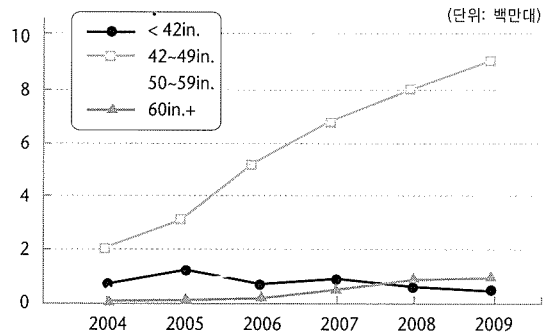
* 자료: IDC, 2005. 07.

지역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 출하량의 (2005) 36.9%를 차지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서유럽 지역의 성장률 증가세가 미국을 뛰어넘어 2008년에는 전체 출하량의 36.3%를 차지, 세계 최대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이나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PDP-TV 시장 규모도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약 1백 17만대의 PDP-TV가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PDP-TV의 시장 전망은 국가별 국민의 소득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2009년 이후에도 현재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되어 PDP-TV의 수요 증가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크기별 PDP-TV 시장전망을 살펴보면, 40인치급 PDP-TV가 시장의 주요품목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하는 상황에서 대형화 추세에 따라 40인치이하의 PDP-TV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50, 60인치 이상급 대형 PDP-TV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5년 전체 시장에서 50인치급 PDP-TV가 차지하는 비

<그림 3> 크기별 PDP-TV 출하량 전망



* 자료: IDC, 2005. 07.

중은 10.5%, 60인치급 PDP-TV의 비중은 1.9%에 불과하나, 2009년에는 대형화 추세에 따라 50인치급의 비중이 27.9%, 60인치급은 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40인치 이하의 중소형 PDP-TV는 연평균 -22.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5년 16.9%였던 시장 비중이 2009년도에는 2.0%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벽걸이형 TV시장에서 PDP-TV의 강력한 경쟁자인 LCD-TV의 경우 7세대 LCD 양산 라인이 삼성전자와 Sony의 합작법인인 S-LCD가 유일한 상황이며, LG필립스LCD의 7세대 양산 전망이 2006년 상반기로 미루어지는 상황에서 LCD-TV는 당분간 PDP-TV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가 대형 LCD-TV를 겨냥해 40인치 이상급 LCD 패널의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6세대 기판으로 40인치 패널은 3~4장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효율이 떨어져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40인치 이상급 LCD-TV는 2007년 이후에나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 40인치급 LCD-TV와 동급의 PDP-TV와의 가격비교는 LCD-TV가 약 20% 높은 상황이며, 50인치급 이상의 대형 TV 부분에서는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TV 시장에서 대형화, 경박화, 저가격화에 대한 요구는 PDP가 다른 디스플레이와 비교해 우위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으며, 가격이 비싼 대형 PDP에 대한 수요 증가로 PDP산업의 수익 향상이 예상된다.

PDP 업계 동향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6면취 공법을 양산에 적용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PDP 모듈 및 PDP-TV 전분야에서 세계 1

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LG전자의 A3 라인에 세계 최초로 6면취 공법을 적용한 라인으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비 공정수와 리드타임을 절반 이상 줄였으며, 향후 수요 증가여부에 따라 2006년 중 8면취까지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2004년 6월에는 세계 최초로 XGA급 42인치 싱글스캔 기술을 상용화한데 이어, 2005년 50인치 싱글스캔 PDP를 출시함으로써 기존 PDP 모듈 대비 20~30%의 원가절감을 이루어냈다. LG전자는 6면취 공법 적용에 의한 시장지배력 강화, 42인치 전 품목에 대한 싱글스캔 기술 적용에 따른 원가절감 및 대형TV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PDP사업부에서의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는 현재 세계 1위 PDP 생산업체로서 최첨단 다면취 공법 적용 및 앞선 독자적 생산기술 등을 바탕으로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삼성 SDI는 2003년 처음으로 2면취 공법을 적용한 이래 2003년말 3면취, 2005년 4면취를 완벽하게 적용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비해 안정적으로 생산 능력을 극대화시켰다. 특히 인라인 방식 설비와 블레이드 격벽형성법 등 독자 생산기술 및 설비 효율을 높이는 최고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다면취 라인에 적용함으로써 타 업체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원가절감을 이루어낸 PDP 신기종인 V4의 생산량 비중이 42인치 HD급 기준으로 2분기 35%에서 3분기에는 88%, 4분기에는 96%로 대폭 확대시킴으로써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리온 PDP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최근 단품 생산을 중시하고 멀티 PDP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며 따라서 구미에 위치한 생산라인을 멀티PDP 생산 전용라인으로 연말까지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품 PDP의 경우 선도업체와 비교해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틈새시장인 상업용 멀티 PDP에 회사의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리온 PDP는 멀티 PDP의 경우 매장 디스플레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현판용 등으로 사용되며, 42인치 PDP 패널을 여러 개 연결하는 형태로 원하는 크기의 화면을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연결되는 패널 사이의 간격이 5mm밖에 되지 않아 하나의 화면을 보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본의 Matsushita와 Pioneer 등은 PDP-TV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PDP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생산된 PDP 대부분을 내부에서 소비하고 있으나, PDP부품에서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증설 등을 통해

외부 공급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업체 중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Matsushita는 최근 자사 PDP-TV 브랜드인 Panasonic의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LG전자를 제치고 2005년 2분기 패널 부문 점유율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디스플레이서치의 발표에 따르면, Panasonic 브랜드는 PDP-TV 부문에서 1분기 대비 90%의 출하량 증가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27%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Matsushita는 올 10월부터 일본 내 3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생산능력을 올해 연말까지 월 30만장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일본의 Pioneer는 9월에서 10월 중으로 콘트라스트비 4000:1, 기존 모델과 비교해 30% 전력 소비 절감 및 Pioneer에서 개발한 고유의 컬러 필터를 사용하여 반사광을 크게 줄인 PDP-TV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waffle 구조에 따른 발광 효율 향상 및 독자적으로 개발한 direct color filter를 통해 기존 PDP와 비교해 반사광을 크게 줄였다고 보고하였다.

Fujitsu와 Hitachi의 합작회사인 FHP는 Fujitsu의 PDP 부문 철수로 인해 Hitachi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며, 미야자키 공장에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PDP 산업은 그 동안 공급과잉 및 고가격에 따른 PDP-TV의 대중화가 늦어지면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수익구조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PDP-TV의 가격이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공급측면에서 몇몇 대형 업체들로의 재편으로 인한 안정화와 수요 측면에서 세계 경제 회복 및 내년도 독일월드컵 개최 등으로 인해 대형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이후 고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2005년 2분기 대형 TV 부문에서 기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프로젝션 TV를 앞서 PDP-TV가 1위를 차지함으로써 향후 PDP가 LCD, 프로젝션 등 다른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대형 TV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PDP-TV는 가전제품 중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상황에 의해 그 수요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의 고유가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당초 예상보다 PDP-TV의 수요 증가가 더뎠을 수도 있다.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TV와 같은 영상기기에 대한 요구가 점차 대형화,경박화로 옮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PDP와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